

HEADLINE NEWS

녹지 네트워크 조성·보전을 위한 웹사이트 오픈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市)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州의 모든 녹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클리어링하우스 웹사이트(www.pagreenways.org)를 최근 오픈했다(사진 참조). 이 웹사이트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녹지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의 조성·보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은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문화적·역사적인 공간, 도시와 농촌 커뮤니티 등의 광역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원, 산림, 야영장, 호수와 다른 지역 사이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와 아울러 州당국은 2005년까지 1,000마일 길이의 수계(水系) 조사를 완성하고, 2007년까지 펜실베이니아주의 모든 그린웨이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 및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州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녹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민간과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간에 경계를 넘어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dcnr.state.pa.us/index.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규모 도시공원 확충 계획 (애틀랜타市)
- ② 세계무역센터 주변지역 개발계획 추진 (뉴욕)

도시환경

- ③ 중소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환경성적 프로그램’ 시행 (매사추세츠州: 보스턴)
- ④ 생태계 보호 위해 경작지를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 (플로리다州: 텔러해시市)
- ⑤ 상수원 보호 위해 상수원 주변에서의 경작 중지 및 친환경적 농업 유도 (뉴욕)

도시교통

- ⑥ 승객 편의 위해 도시급행버스 확충 (로스앤젤레스)
- ⑦ 대중교통 이용 증진 위해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계획 (시드니)
- ⑧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해 요금 인하 및 다양한 정기 승차권 도입 필요” (뉴욕)
- ⑨ 카풀 활성화 위해 카풀 참여자에게 무료 주유권 배포 (캘리포니아州: 샌머테이오 카운티)
- ⑩ 런던 지하철 여직원 채용 확대해 성비 불균형 시정 추진 (런던)

사회복지

- ⑪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Snug Bus’ 도입 (런던)

행정재정

- ⑫ 市직원 대상 자동 신원관리시스템 도입 (로스앤젤레스)
- ⑬ 市예산 절감 위해 정보기술의 활용 확대 (뉴욕)

① 대규모 도시공원 확충 계획 (애틀랜타市)

미국 조지아(Georgia)주 애틀랜타(Atlanta)市는 최근 대규모 도시공원(urban parks)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市는 우선 뉴욕의 Central Park나 시카고의 Grant Park에 견줄 만한 500에이커 규모의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市전역에 걸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市는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3,122에이커의 토지를 공원 및 녹지 용도로 구입하고, 강, 하천, 호수 등의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역을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학교 및 공원과 연계시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市는 공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市조직내에 공원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he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2002. 11. 28)

② 세계무역센터 주변지역 개발계획 추진 (뉴욕)

미국 뉴욕市는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주변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 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개발방향으로는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 Waterfront 개발의 확대, 공원 조성, 가로미화 및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이다. 우선,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교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맨해튼과 이 지역의 2개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뉴욕 도심을 축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통근 철도망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市는 또한 맨해튼이 주거 및 업무지역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교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계획 시행을 위한 비용조달을 위해 市당국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비과세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www.cnn.com/2002/US/Northeast/12/12/wtc.rebuilding/index.html)

③ 중소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환경 성적 프로그램’ 시행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중소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환경성적 프로그램(Environmental Results Program)’을 시행,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공장 설립시에 공장별로 오염배출량을 허가해주는 전통적인 오염규제방식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성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전통적인 오염규제방식은, 공장별로 적정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장들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환경개선효과가 미미했다.

‘환경성적 프로그램’은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중소규모 공장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스스로 각성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공장주나 공장관리자는 매년 한번씩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밝힌 후, 앞으로 1년 동안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서명 보증해야 한다. 만일, 공장주나 공장관리자가 지난 1년 동안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환경관리기준 준수 복귀계획(Return to Compliance Plan)’에 등록해야 한다. 이 복귀계획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기관이 공장주나 관리자에게 각 공정별 환경관리기준과 오염방지기술 그리고 각 설비별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설명한 워크북을 제공하고, 환경관리기준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환경관리기준 준수 일정계획을 마련해 준다.

한편,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기관은 무작위 샘플 선정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조사대상 공장을 선정,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장별로 어떤 지원과 규제가 적절한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현재 주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해왔던 드라이클리닝업체, 사진현상업소, 인쇄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앞의 3개 업종에서 단지 380개의 공장만이 주정부의 규제대상이었으나, 이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2,200개의 공장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주정부의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다른 업종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www.state.ma.us/dep/erp/about.htm)

4] 생태계 보호 위해 경작지를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 (플로리다주: 팰러해시市)

미국 농림부와 플로리다(Florida)주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3,000에이커의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153만 달러 규모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농림부와 플로리다보전위원회, 지역농민들이 협력해 버려진 농경지와 자투리 경작지 재배 농민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플로리다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비용 또는 다른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초본(草本)류와 수목, 초지로 조성된 자연경관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농민과 당국의 협력관계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종과 야생종에게 맑은 물과 안정된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습지보호시설을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막고, 농약성분을 함유한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www.caprep.com/1102009.htm)

5] 상수원 보호 위해 상수원 주변에서의 경작 중지 및 친환경적 농법 유도 (뉴욕)

미국 뉴욕시는 최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뉴욕시 상수의 약 90%를 공급하고 있는 캐츠킬/델라웨어(Catskill/Delaware) 상수원 지역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작 중지 또는 환경친화적인 농법 이용을 유도하는 ‘상수원 보호증진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작지에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영양소, 병원체, 퇴적물 등의 양을 줄이기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 중 침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작지 3,000에이커와 상수원 수변지역 2,000에이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시는 2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연방정부의 농림부로부터 10년에서 15년 동안 770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상수원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그외의 보호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영농 비용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www.nyc.gov/html/dep/html/news/crep.html)

6 승객 편의 위해 도시급행버스 확충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그동안 도시급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현재 36개 노선의 '도시급행버스시스템(Metro Rapid Bus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도시급행버스가 시민들이 직장이나 병원, 레크레이션 장소 등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통행수단이 된다고 평가하고 2002년 12월까지 2개 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2008년까지 1억 1,050만 달러를 투자해 24개 노선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이 도시급행버스가 성공한 이유로, 우선 '버스신호우선시스템(bus signal priority system)'을 꼽고 있다. 시는 버스우선신호시스템에 의해 도시급행버스가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통행시간을 20~30%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승객들이 빠르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저상버스(low-floor bus)의 운행,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버스 외양, 버스운행시각 안내시스템을 갖춘 버스정류장, 그리고 0.2~0.3마일 간격으로 버스정류장이 있는 로컬버스들과 달리 평균 0.8마일 간격으로 설치된 버스정류장 등을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 도시급행버스시스템은 '정부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수여하는 '정부혁신상'의 2002년도 준결승에 현재 진출해 있다. (www.lacity.org/mayor/mypress/ND7775.pdf)

7 대중교통 이용 증진 위해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계획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버스의 운행속도를 증진시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버스 위주의 신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호주의 Roads and Traffic Authority에 의해 추진되는 이 시스템은 버스에 통신장치를 설치해 버스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시켜 버스의 교차로 지체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신호시스템에 버스운행시간표를 입력하고 버스에 GPS를 설치하면, 도착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버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신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승객들은 GPS 단말기를 이용해 버스도착예정시간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www.smh.com.au/articles/2002/12/15/1039656300874.html)

8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해 요금 인하 및 다양한 정기 승차권 도입 필요” (뉴욕)

미국 뉴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2002년 9월 850명의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 및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50에서 \$1.40으로 인하하고, 보다 탄력적인 정기 승차권을 도입하는 것이 승객 수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요금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현행 '\$15 이상의 교통카드 구입시 10% 보너스 제공' 제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낮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교통카드를 통한 요금할인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권 종류를 늘리고, 이용 기간도 이용자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정기권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분실 및 도난을 당할 경우 대체 가능한 교통카드의 도입도 제안했다.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요금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www.nytimes.com/2002/11/18/nyregion/18TRAN.html)

9 카풀 활성화 위해 카풀 참여자에게 무료 주유권 배포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San Mateo) 카운티를 주축으로 하는 'Peninsula Traffic Congestion Relief Alliance'는 카풀을 권장하기 위해 카풀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주유권을 배포할 계획이다. 8주 동안 1주일에 2일 이상 카풀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운전자에게 40달러치 주유권을 배포하는 이 '카풀 인센티브 프로그램 (Carpool Incentive Program)'은 이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2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나홀로 승용차'의 운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Peninsula Traffic Congestion Relief Alliance'는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 통근자들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승차권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www.sanmateocountytimes.com/Stories/0,1413,87%7E11268%7E1061773,00.html#)

도시교통/사회복지

세계도시동향

런던 지하철 여직원 채용 확대해 성비 불균형 시정 추진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은 최근 'Girl About Town', 'Ms London'과 같이 우수한 여성 잡지에 여직원 구인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2001년도에 여성 전동차 기사를 모집한 바 있는 런던 지하철측은 이번에는 소비자지원팀 여성 스태프 구인광고를 냈다. 런던 지하철은 현재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당분간 여직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uk.news.yahoo.com)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Snug Bus' 도입 (런던)

저녁 및 야간 시간대에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Snug Bus'가 영국 런던의 Fulham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병원이 함께 협의해 도입한 이 버스는 Fulham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운행될 예정이다. 'Snug Bus'는 환자 수송이 가능하게끔 응급차 수준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에 1대씩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buse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직원 대상 자동 신원관리시스템 도입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2002년 11월 자동화된 신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공무원의 신원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관련기록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왔던 각 부서의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와 보안 속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해 내부 시스템이나 정보 그리고 정보통신도구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이용자를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카드와 출입증 등의 인증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www.govtech.net/magazine/channel_story.phtml?channel=7&id=31664)

미국 뉴욕시 예산 절감 위해 정보기술의 활용 확대 (뉴욕)

미국 뉴욕시는 매년 50억 달러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서비스를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예산절감방안은 주로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것들이다. 이 중에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 확대, 온라인을 통한 시소유 시설물 이용권 구입제도 도입, 전화회사와의 서비스구매 재협상 및 불필요한 통화서비스 정비를 통한 통신비 절약, 데이터 공유 및 인터넷 서비스 통합을 통한 정보 통신비 절약, 서류 없는 전자정부의 조기 실현, 시소유 차량의 순차적 감축, 공공기관에 발급하는 공공주차장 무료주차권 감소, 공공병원에서 X-ray 사진의 디지털화, 그리고 모든 병원기록의 온라인화 등이 있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334-02.html)